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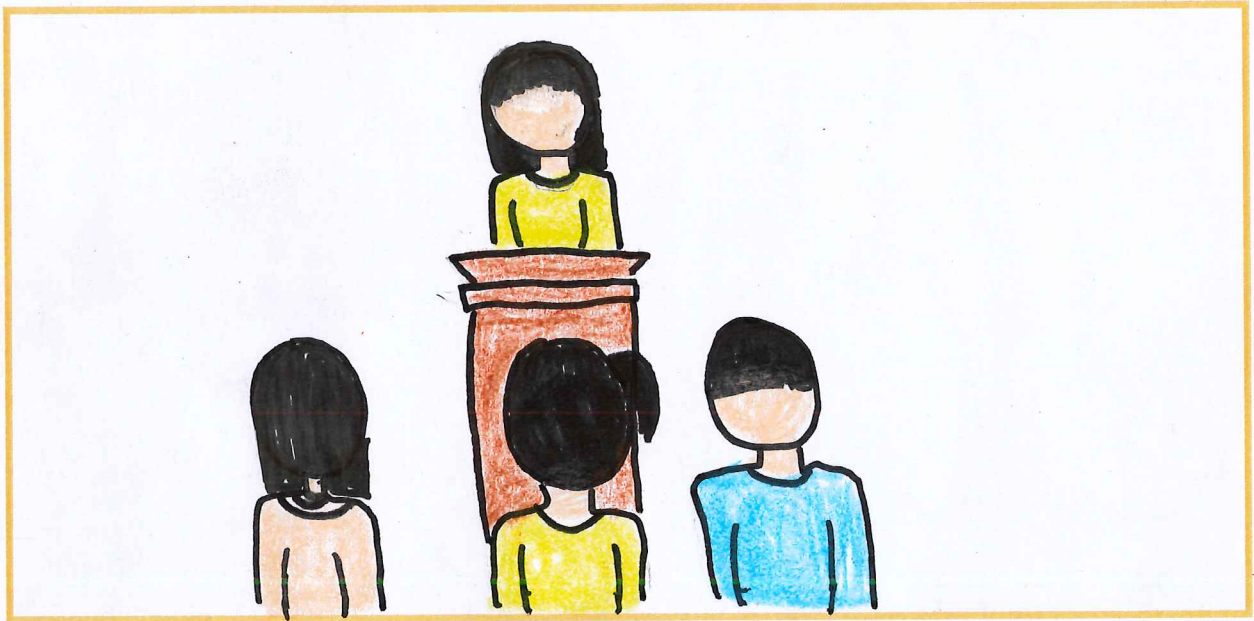


이름 고시아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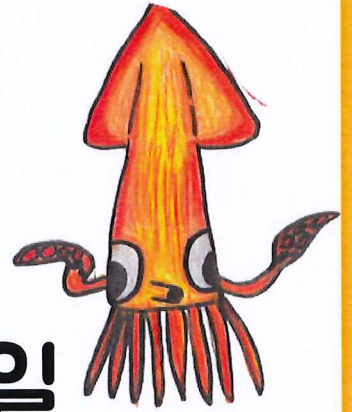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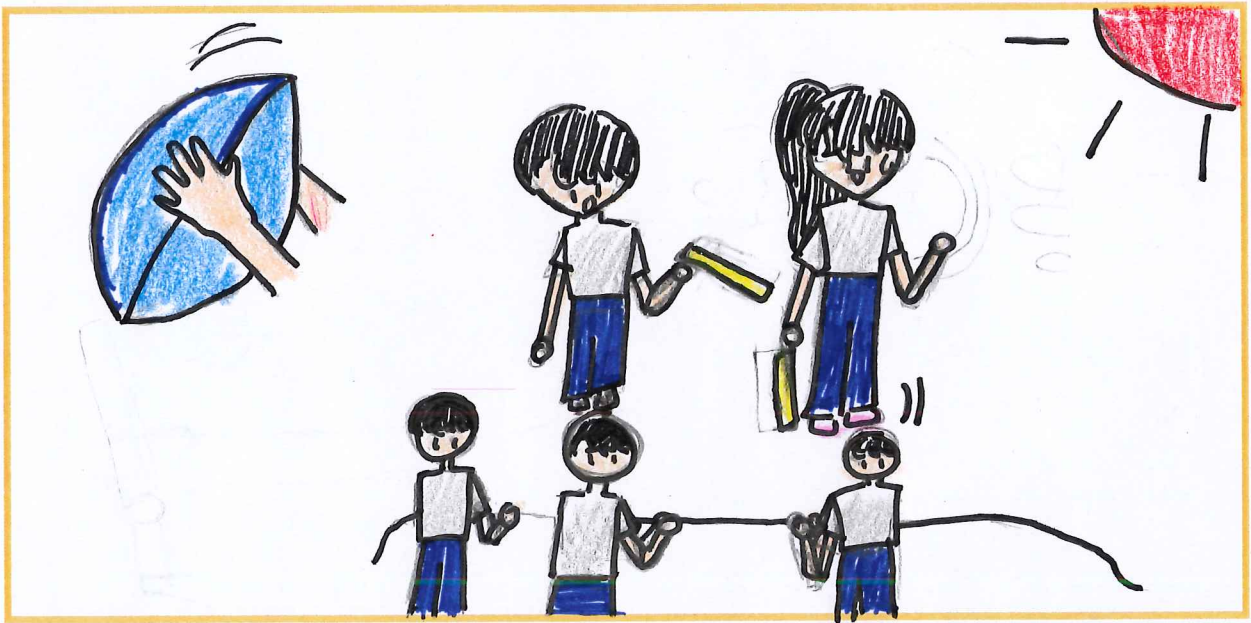
오늘은 학교에서 반장선거 하는 날이었다. 1학기때 부반장 선거때 나왔다가
안돼서 2학기때 다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안되면 포기하려 했었다.
어느새 내차례가 되었는데 막상 내차례가 되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렸다.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너무 긴장되어 조금 실한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재표를 했을 때 내가 오픈나 나왔었다.
신기하고 좋기도 해서 최고의 날인 것 같았다.

이름 김세령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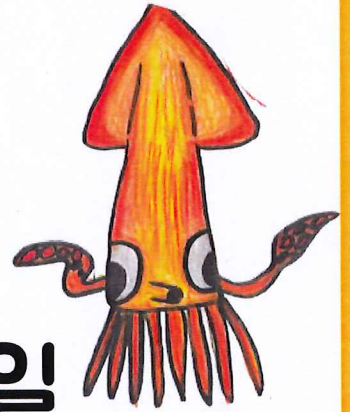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햇빛이 쨍쨍한 이날, 우리반과 다른 반의 5학년은 체육대회 날 때문에
운동장에 모여 복각복각 했었다. 우선 첫번째로 킹런볼을 했었다.
우리반은 대전 윤이 안 좋아서 바로 시작부터 지고, 그 반은 킹런볼까지
풍우승을 했다. 두번째로는 줄다리를 했었다. 줄다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2:로
우리반이 이겼다. 그 다음에는 줄넘기를 했는데 남녀 모두 한채서 260~280(4명)
개 정도 나왔다. 그때는 다른 반이 엄청 잘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등수를 받았다. (중) 마지막으로 계주를 했었는데 우리반이 엄청 잘
달려서 우리반이 1등을 했었다. 너무 만족하고 좋은 하루였다.

이름 김연아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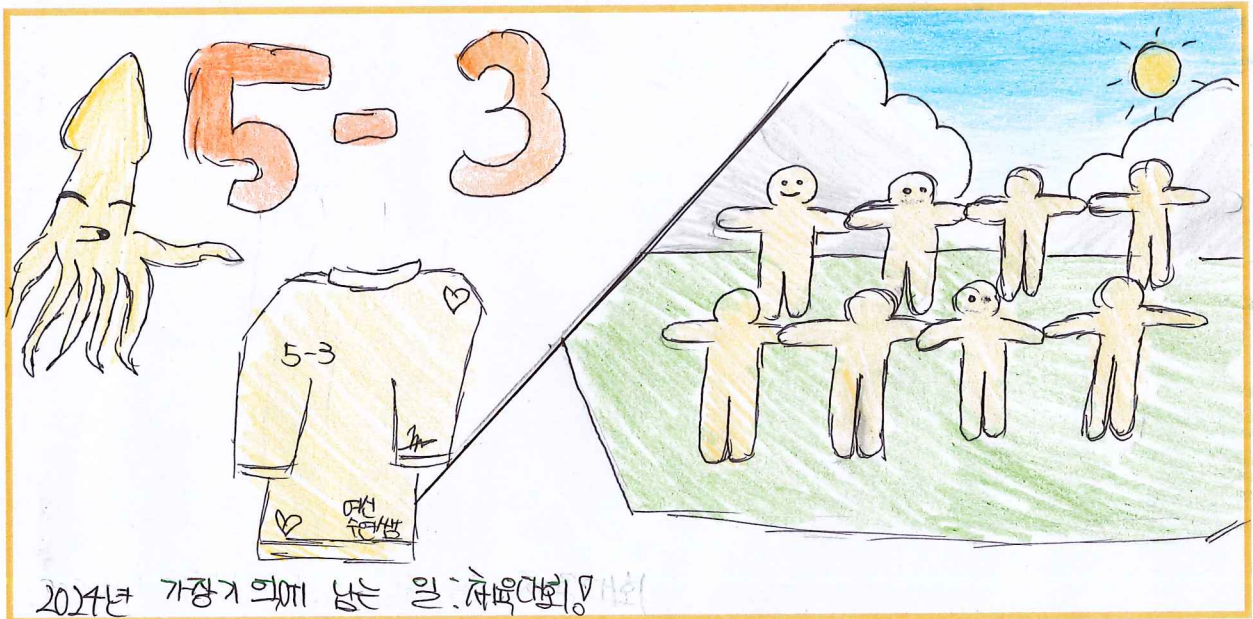
"연아야 넌 반장, 부반장 선거 나갈까?" 친구들이 나에게 물어 보았다. 부반장 선거에 나가려고 해 떨렸지만 친구들의 물음에 난 더 떨리게 되었다. 그렇게 반장선거가 끝나고 부반장 선거가 시작됐을 때 난 마음속에서 말할 수 하면 어떡하지? 등의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한 명 한 명 발표를 하고 내 차례가 왔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난 나가서 준비해온 공약을 말했다. 떨려서 마지막 부분을 제대로 못 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투표 공개시간이 되고 내 양이 계속로 불렸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결국 내가 부반장이 되고 친구들이 나를 응원해줘서 정말 벅하게 고맙웠다. 난 친구들의 칭찬에서 더 부반장 일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 김이솔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체육대회!

오늘의 날씨는 맑고 바람이 불어 많은 따뜻한 여름이었다, 우리 하늘초등학교는 오늘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연습한 크리켓, 팔자 쏘르기, 피구 등 여러 종목을

대결하는 5학년 체육대회가 열렸다. 장소는 운동장, 강당 등 여러 곳곳에서

열렸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신 다음 여러 반 친구들과 서로 대결을

하며 재미있게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반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긴장되는 마음을 느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5-3반에 행복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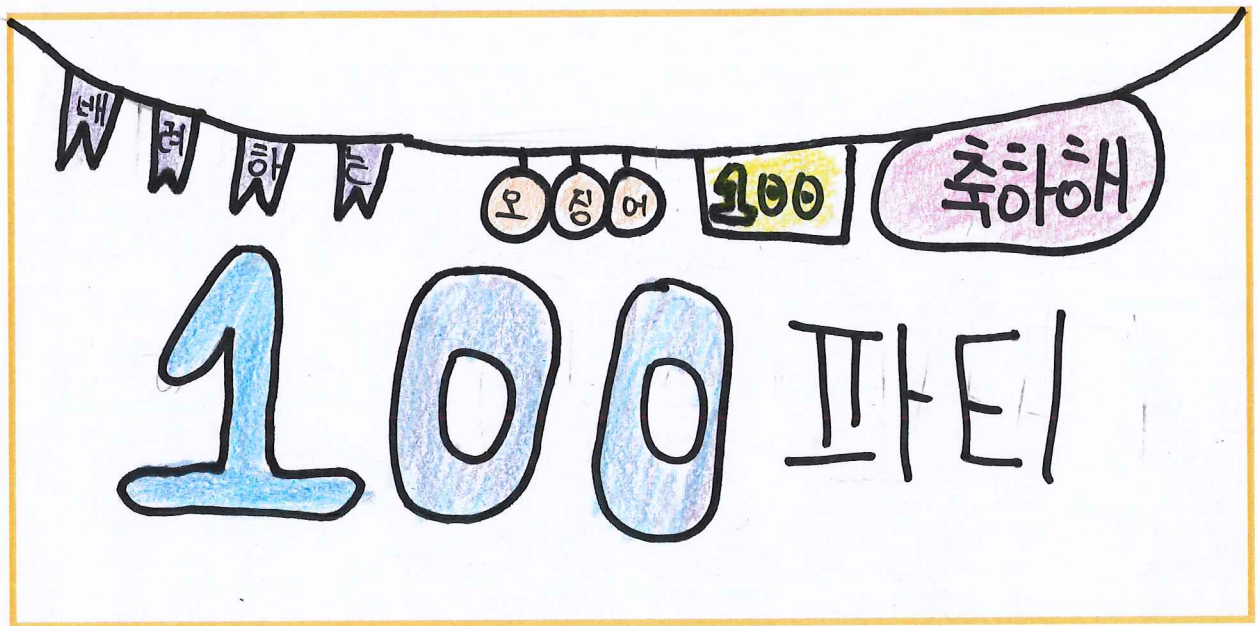
저는 아바하고 동생이랑 명동 가는거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낚시는 좋아했다
파란하늘에 달구름이 보였다 명동에 있는 케이팝 앨범 있는 건물도
있었다 건물에 식당 같은것도 봤어요 하고 앨범 2개를 사고 마루에
갔다 식당에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다 다 먹고 탄수화물 먹었다 먹고
있는데 힘들어서 바로 집으로 갔다 가장 좋았던 점은 앨범 난 부분
입니다 하고 명동의 남산타워의 대해서 알았다 또 가고 싶고 다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이름 석혜승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나는 6월15일에 배려하는 오징어반과 100일 파티를 했다

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께서 시켜주셔서 하게되었다

1~2교시에는 피클을 했다 A/B으로 나누었다 3교시에는

편의점 마켓을 했다 4교시에는 마녀배달부 키키를 봤다

나는 1~2교시가 쎄 재밌었고, 100일 파티를 해서

진짜 너무 즐겁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진짜

행복했다 다음에도 이런 파티를 하면 좋겠다.

이름 이서주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체육시간에 춤을 췄다.

그 이유는 체육활동에 춤추기가 있어서다.

배운 춤 노래는 BTS 노래인데, 이 춤이 원래 어려운데 쉽게 변형되어 있어서 더 이해가 빠르게 되고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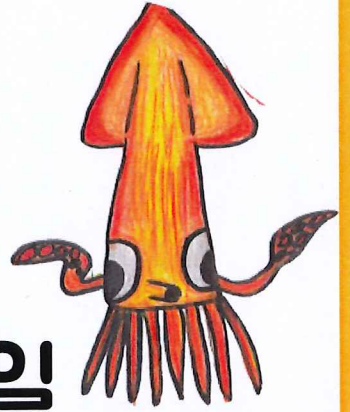
다음에도 또 체육시간에 춤을 배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더 즐거웠기 때문이다.

행복한 추억을 남기게 되어 좋았다.

이름 이제아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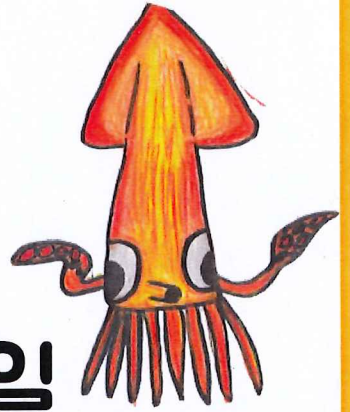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오늘은 배려하는 오징어반 100일 기념으로 파티를 했다.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케이크를 먹었는데 넘 맛있어서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에는 남/여 피구대회를 했는데 완벽하게
져서 열심히 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음날에는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영화를 보면서 과자를 먹었는데 영화에 나오는 지지가
너무 귀여웠다. 이 100일 파티 중에 영화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름 이하은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그날은 언제나처럼 평범했다, 하지만 몇명에게
이날것이다(나도) 왜냐면 반장선거가 있었어 거기다.

나도 도전했는데, 나는 부반장이었다. 그리고 내 차례,
나는 내가 준비했던 걸 다 하였다. 대당의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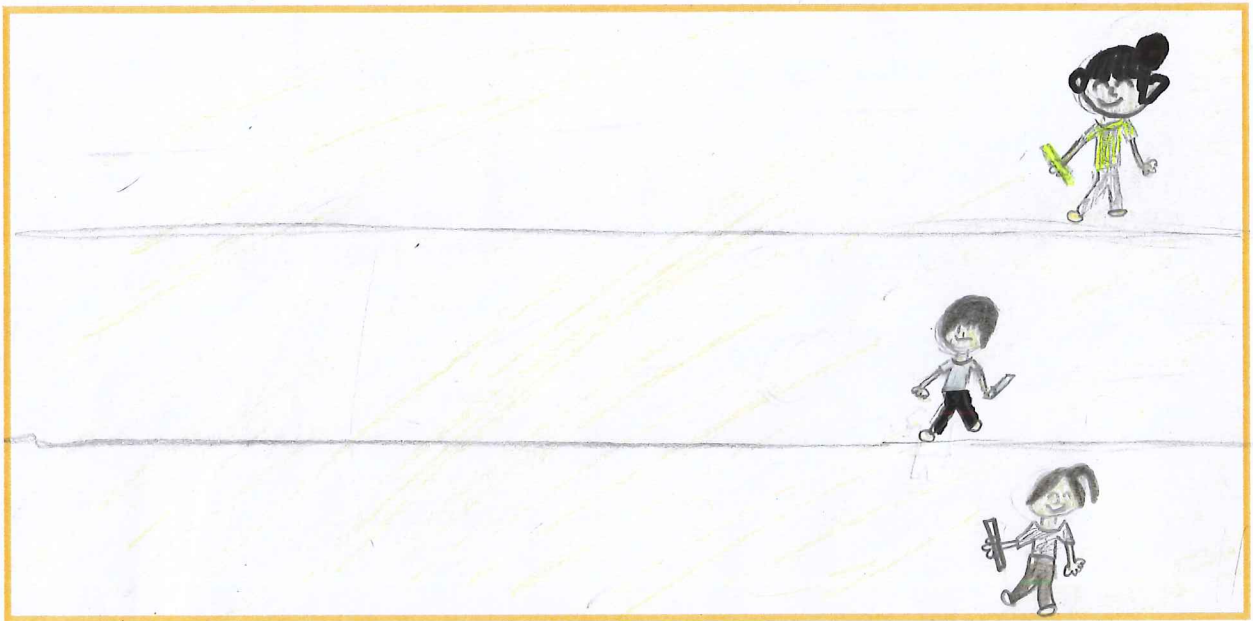
시간, 나는 숨죽이며 투표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쪽 지표를 열고 결과는 나당연! 나는 아직도
그때에 감정이 생생하다.

이름 이하람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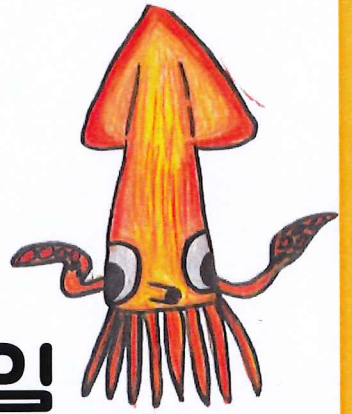


5월3일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날씨가 좋았지만 많이 더웠다.
킥러볼을 했다 근데 킥러볼 연습을 많이했는데 저서
조금 슬펐다. 그 다음에는 줄다리기를 했다 한번
넘어져서 아팠지만 이겨서 좋았다. 팔자 줄넘기도 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잘했던거 같다. 그 다음에도
제주랑 피구등을 했다. 체육대회를 더 하고 싶고
친구들과 협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걸 알았다.

이름

주하은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화창한 날이었다. 오징어반이 100일을 맞아 100일 파티를 했다.

100일 파티에서 선생님이 만드신 케이크도 먹었다. 그리고

피구도 하고 마켓놀이도 했다. 배려하는 오징어반과

같이 파티를 해서 더더욱 재미있었다. 아 과자파티를

하며 영화도 같이 보았다. 배려하는 오징어반과 함께

축제도 쉽고 다같이 놀수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다. 다음에도 다른 파티들 많아하면 좋겠다.

이름 박지아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배려하는 오징어반 200 일을 기념해서 200일 파티를

하게 되었다. 1~2 교시는 피구 대회, 3 교시는 팀 전

을 했고 2교시는 남/여 피구를 했다. 3교시는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아쉽 게도 4교시는 영어였다... 5~6 교시는

우리반 체육 대회를 했다 5교시에 킥러볼을

했고 6교시에 계주를 했다. 계주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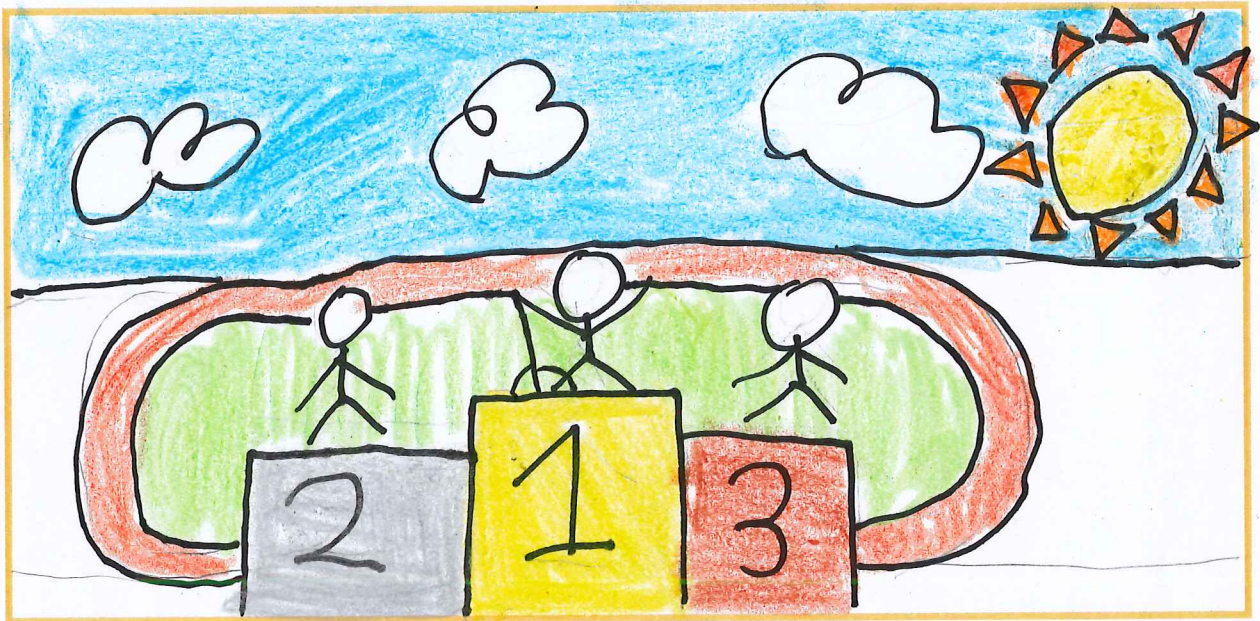
음엔 졌는데 남/여 한 팀은 여자가 이겼다.

이름 강민재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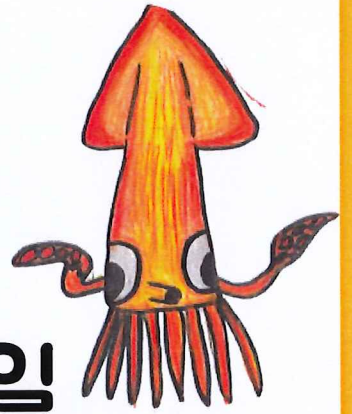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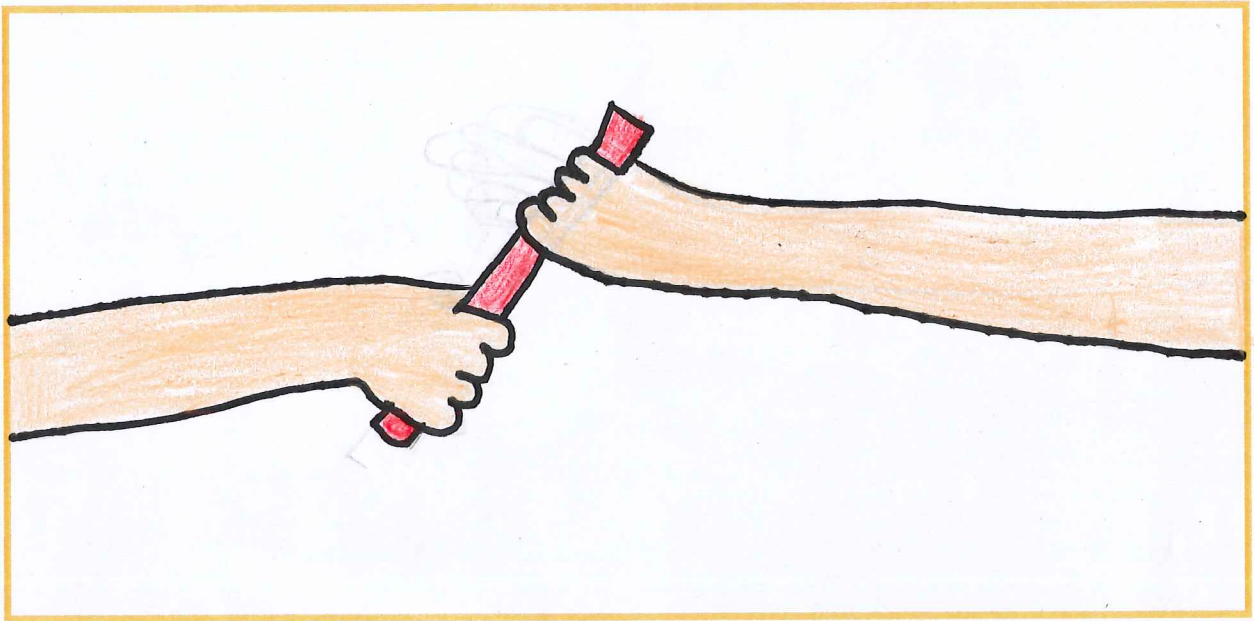
날씨가 맑은 날에 체육대회를 했다.
먼저 준비운동을 하고 강당에서 훌라호프
넘기를 했다.그다음 운동장으로 이동해서 5반과 킹 런볼
을 했는데 5:4로 패해서 아쉬웠지만
줄다리기 는 이겨서 좋았다. 또 피구 도
했다. 마지막으로 계곡은 아주 열심히 뛰어
서 1등을 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름 김우진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나는 체육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날씨는 따뜻해서 좋았다. 그리고 체육대회

에서 했던 일은 전락 줄다리기, 킥볼, 팔자 줄넘기, 계주

를 했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기 전 달렸다.

그리고 경기를 다 했지만 계주는 동을

했다. 그리고 계주와 킥볼이 재미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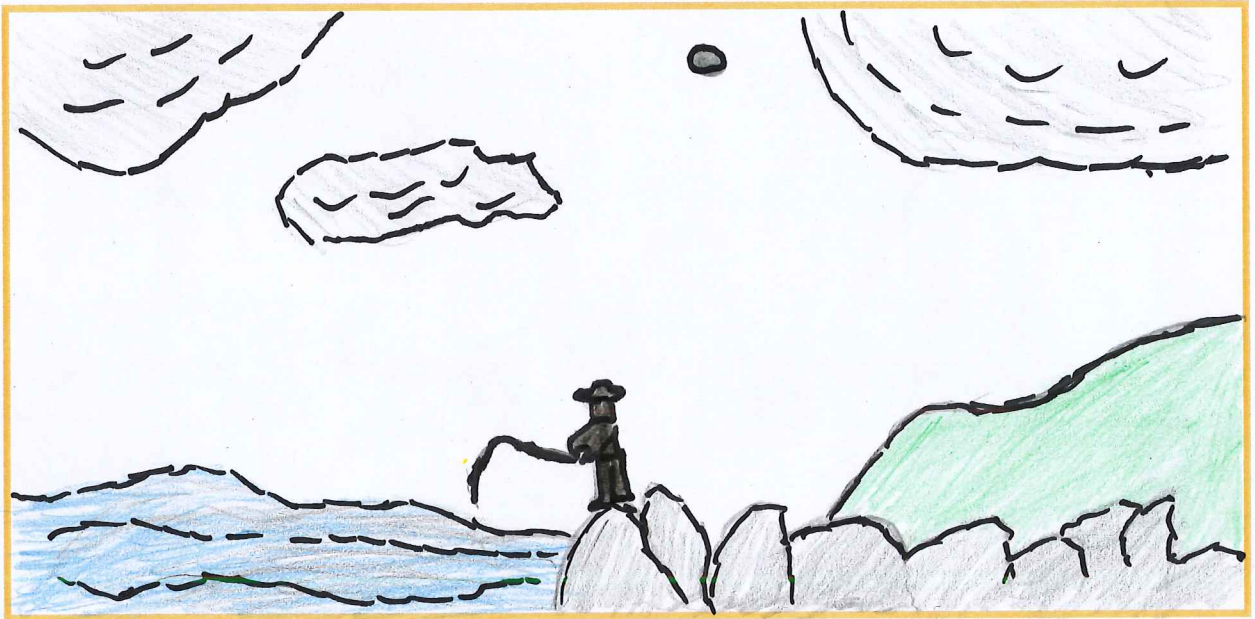
다음에도 하고 싶다.

이름 박시호 (Parksiho)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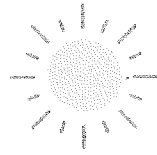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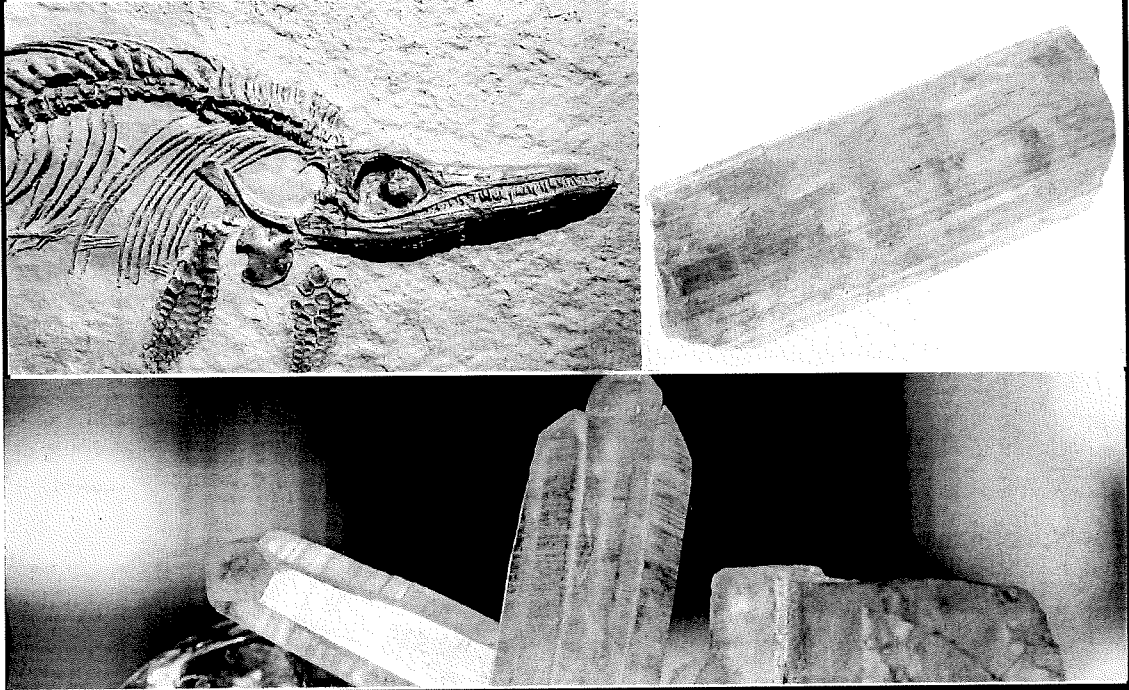


우리 집에 있는 해산물이 다 떨어지자 4배양내가
해산물들을 잡으러 을왕리근처 바다로 갔다.
바다로 오니 정말 시원했다. 낚시대로 물고기
들을 잡았다. 그물고기의 양은 우럭 9였다.
물고기를 계속 잡으니 기분이 참 좋았다.
자식은 참 신비하다. 그리고 낮에는 놀아서, 밤에는
우럭이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다. 집어내서 우럭을
회로 해서 먹으니 기분이 참 좋았다. 그날따라 물고기잡이도 계속다.

이름: 박현준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



제목: 루페우스 방문

나의 취미인 화석, 광물 수집을 위해 전세계 화석, 광물을
취급하는 루페우스 샵에 방문했다. 전세계에서 온 표본들을
한 자리에서 보니 나라별 표본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자수정이 수정에 철 성분이
들어가서 보랏빛을 띄는 것이었다. (SiO₂) 빨리 일본처럼
우리나라에도 화석, 광물 수집 문화가 퍼지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표본들을 한 자리에서 보니 정말 좋았다.

이름 신보음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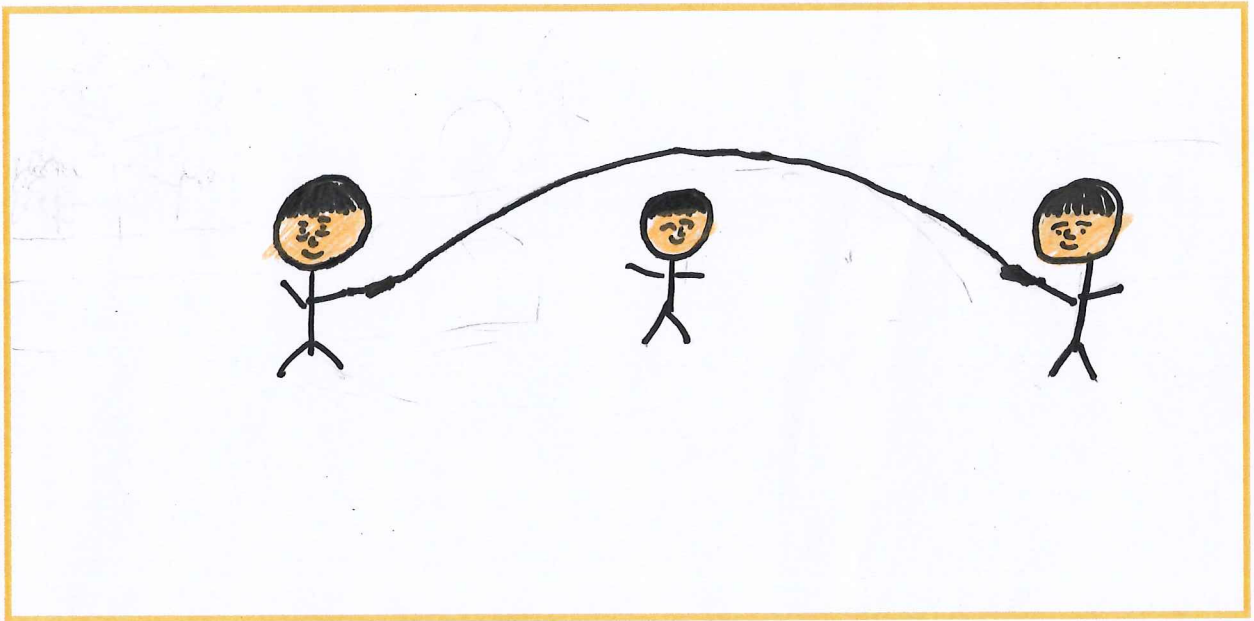
2024년 5월 3일 화요일 해폭탄 처럼 더운 날
<오늘 체육대회를 했다. 계주를 할때에
<나의 차례가 되었을때 난 더위에 지쳐가
<지고 다른 팀보다 좀 느리게 달렸다. 근데
<결승선에 다다르고 바동을 넘기려고 했는데
<친구가 없었다. 알고보니 그 친구가 자기 차례
<인줄알고 부정출발을 한 것이였다. 그래서 약간
<상위권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재밌었다!>

이름 윤무영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오늘 날씨는 맑고 더웠다. 나는 학교를 빨리 가고 싶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날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반은 첫 번째로 5번과 적관봉을 했다. 아쉽게 점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그다음에 딸자 종다리를 하러 갔다. 우리반은 2등했다. 다음은 줄다리기 등 하러 갔는데 2번고사 했다. 우리가 1번이었지만 막상막하로 졌다. 이제 쉬다가 금식을 먹고 계수를 하러 갔다. 우리반은 1등으로 들어와 이겼다. 끝나고 우리반원로와 음료수를 받아 즐겁다. 기뻐하면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름 이도환

배려하는 오징어반

넌씨: 맑음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제 목: 온강기, 알리바이터, 지진

가게된이유는 대피하려고, 조난대피훈련,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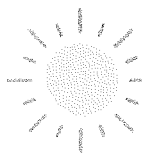
첫째: 온강기는 피난기구다.

둘째: 알리바이터가 멈췄다. 막혔서무셨다.

셋째: 지진은 지구에 판들때문에 생기는거다.

끝: 온강기, 알리바이터는 우리가 사용
가능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름: 이찬현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



오늘은 체육대회를 했다.

줄다리기에 자신이 많이 있었다.

줄다리를 죽을 다짐으로 했다.

죽었다 자신 있었는데.. 하아

다음에는 1대 10으로 이기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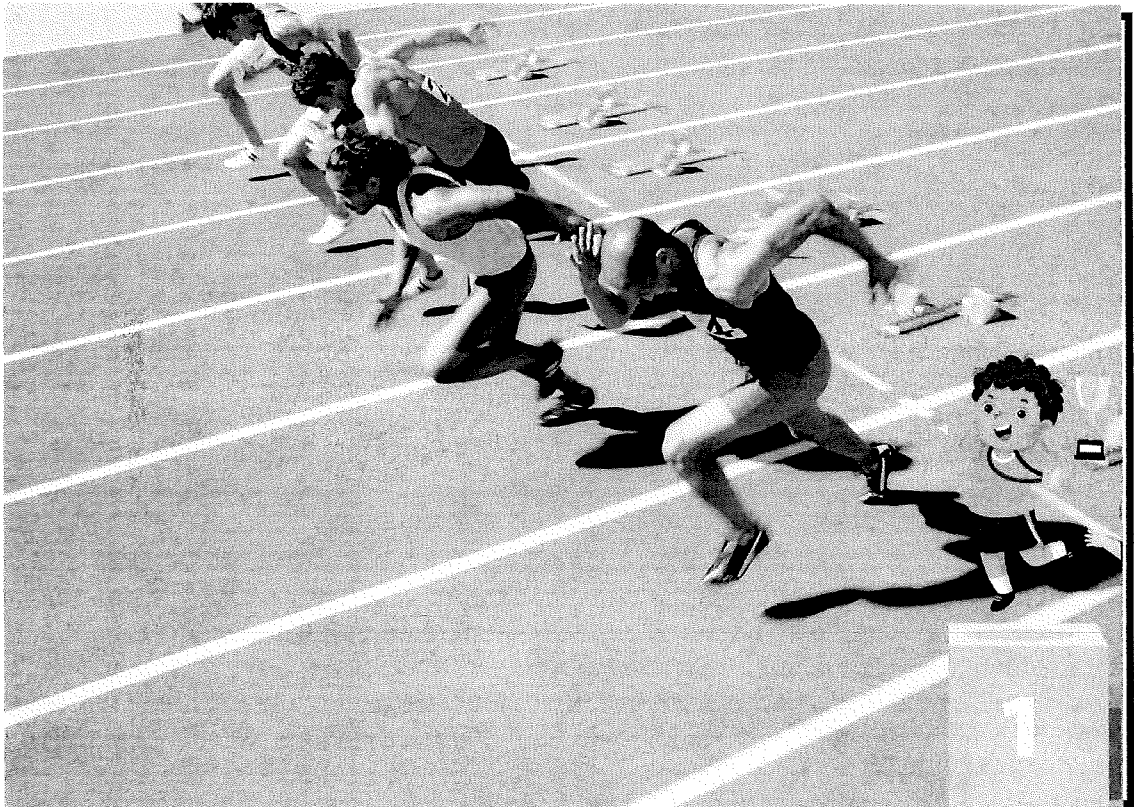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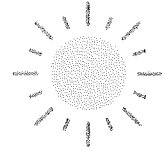
다른 종목도 재밌었고 즐거웠다.

다음에는 5학년 1등이 될 것이다.

아쉽다. 그때 이겼으면 1등이 될수 있었는데

그래도 재미있었다.

이름: 장한



제목:체육대회

체육대회에 아주 재밌는 것 들을 했다. 일단
킥런볼을 했는데 아쉽게도 져서 못 이겼다.
그리고 계주는 아주 열심히 뛰었다. 그래서
1등을 했다. 그리고 줄다리기도 했는데 2반
에 덩치큰 애들이 있어서 이기지 못했다.
피구도했다. 재밌었다.

이름 정연우

배려하는 오징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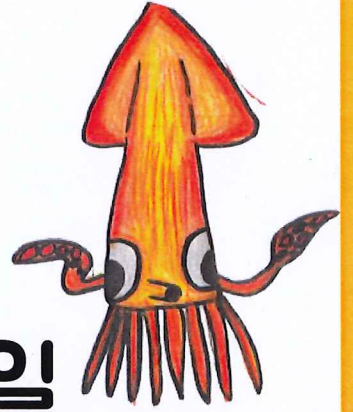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나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엄청 떨렸지만 날씨가 따듯해서 금방 관찮아졌다. 나는 체육대회 중에서도 계주가 가장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반이 계주에서등을했기 때문이다. 나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또하고 싶었다.

이름 허유준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오늘은 유명한 놀이공원에 다녀왔어요. 용인 "에버랜드"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컵부터 사고 바로 놀이기구 쪽으로 갔는데
 허리케인이 있어서 탑승이 안 됩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아바콘 익스프레스를 탔는데 진짜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쿵쿵 버스 대탐험이란 롤링 익스프레스를 타고
 마지막으로 T 익스프레스를 탔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너무 꿈 같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고 싶어요.

이름 문지관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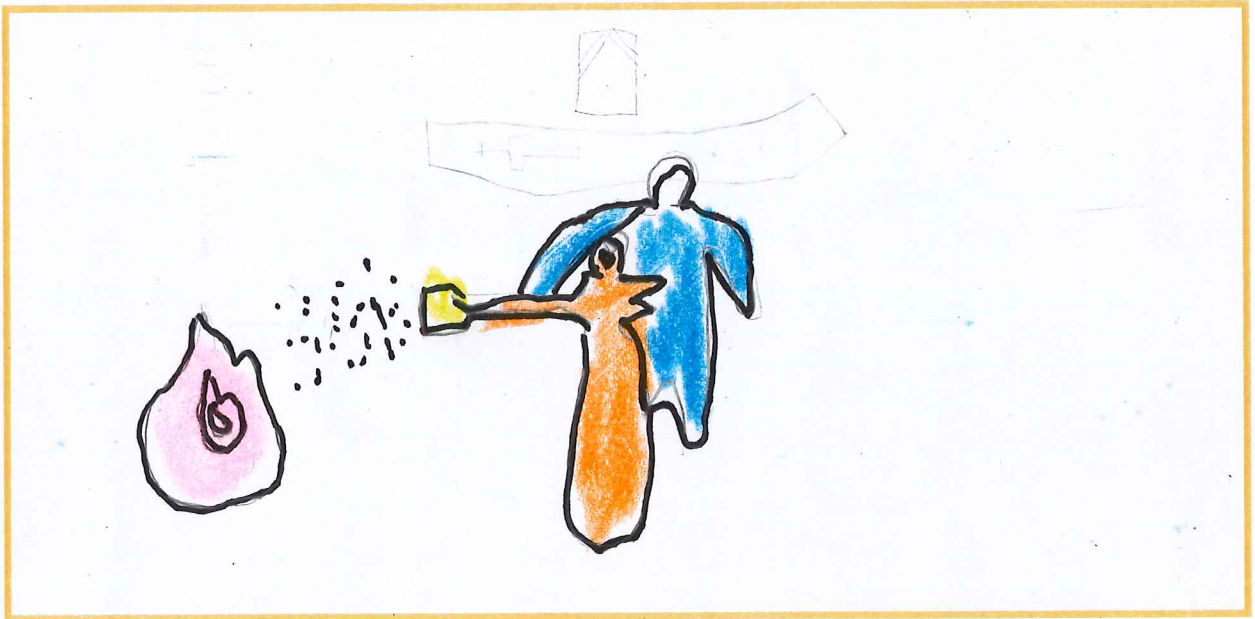
내가 윈피스라는 만화글을 좋아하여, 윈피스 전
사회에 갔다.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윈
피스의 주요장면들을 모아놓은 영상을 봤고,
그 다음엔 시리즈 순서대로 방을 꾸며놔
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인물들을 하나
로 모아놓은 조각상을 보고 끝났다. 너무 재미
있었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다.

이름 김송민

배려하는 오징어반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날씨가 화창했다 이곳은 운동장이었고 나는 오늘이
기대가 많았다 어드 러 셴은 총 4 개 각각 전기화 제 1 연 기
탈출 체험 1 지진과 소화기 를 직접 해 보는 체험이
기대 컸다 우리는 소화기 체험을 먼저 했다
소방서 영웅 아저씨가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 법,
가스 표시 보는 법 등등을 알려 주 셧다 그외에도 재미있었다